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양

이바름(한약학 2013) 양

〈'하:들(HER:들)' 선본 주요 공약〉

공약	내용
총여학생회 회칙제정	자치회비 납부 관련 논의/총여학생회 구성원 명시
생리공결제 UPGRADE	생리공결제 개선제도 시범실시
레드파라솔 DAY	한 학기에 1번 단과대에서 총여와 여학생들이 소통
여학생 지원 프로젝트 : 취업 편	4.5월 서울시 여대생일자리박람회 개최(제안 예정)
여성건강 상담부스	1학기에 1번 여성건강 상담부스 진행
여학생 꿈꾸라 캠프	성폭력 문제 및 총여 사업과 내용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한 해 만들 것”



권미정(국제학 2013) 양

〈'친KHU' 선본 주요 공약〉

공약	내용
남학생 휴게실 설치	남학생이 쉴 수 있는 곳 마련, 철저한 관리
서울-국제 총여학생회 합동 토론회	총여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류
생리공결제 UPGRADE	교수·학생 간의 토론
성평등 상담실 소속 변경	취업진로지원처에서 학생지원처로 소속 변경
강연 개최	여성 CEO 초청/남성의 책임감 덜기
경희주도 캠페인	잘못된 술 문화와 성폭력 예방

서울캠 총여학생회 후보 'HER!들'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권윤지 기자 happitice@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A. 정(금혜영) - 최근 총여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여학생회(총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인식 해소, 자치 회비 문제 해결,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 더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 총여학생회장에 이어 입후보를 결심하게 됐다.

Q. 허:들(HER:들)이라는 선본명의 배경과 의미는?

A. 부(이바름) -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로는 총여의 구성원이 여학생들인 만큼 ‘그녀들’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뛰어넘어야 하는 허들을 상징한다. 여학생과 함께 여학생들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Q. 현 총여학생회의 활동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반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전 부 총여학생회장의 입장에서-

A. 정 - 올해 총여 활동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레드파라솔 데이’다. 또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호응이 좋았고, 서포터즈 친구들을 모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올해는 ‘소통과 인식개선’에 힘썼던 한해였다. 그런데 총여에는 아직까지 회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회칙 제정을 통해 총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총여학생회 폐지론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입장이 듣고 싶다.

A. 정 - 교내에는 아직까지 여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회에서 남녀 취업률 격차는 10퍼센트가 넘는다. 이런 여학생, 더 나아가 여성들의 어려움을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들이 존재 할 수 있는 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Q. 이번 공약 중 중점사항은?

A. 정 - 회칙제정, 생리공결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이다. 회칙제정을 통해 투표권, 구성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시할 것이고, 생리공결제도 같은 경우에는 남용 사례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먼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수님들과도 더불어 생리공결제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Q.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 : 총여학생회를 여 학생 대표기구로 명문화한다고 들었다. 기준에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을 위한 기구이기도 하다는 주장에서 선화한 셈인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회칙 제정을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정 - 회칙 제정에 대한 배경은 총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총여의 구성원은 여학생들이고, 자치회비도 여학생들에게 받고, 투표권도 여학생들에게 있다고 ‘문서화’ 할 뿐이다. 이런 과정에서 남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학생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Q. 안 그래도 불거지고 있는 성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걱정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은 무엇인가.(성평등예산위원회 신설 관련)

A. 정 - 우선 총여는 남학생들을 배제하고, 무시하려고 만든 기구가 아니기 때문

에 성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유학생회가 한국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 것처럼, 총여가 있다고 해서 남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총여가 너무 많은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는 회칙 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따로 독립된 기구인 ‘성평등예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Q. 예산 문제 역시 기존의 공적으로 모두 납부하는 ‘자치회비’라는 입장에서, 각 납부자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우려되는 문제는 따로 없는가?(총유학생회, 총동연, 고황 등의 특수기구 자치회비 문제)

A. 정 - 예전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눈에 많이 띠었다. 자치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회비가 필요한데, 여학생들만 자치회비를 내기에는 기구의 운영이 불확실하고 그 때는 남학생들도 자치회비를 내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자치회비 분배가 총여 예산에도 분배 된 것이다. 또한 자치회비 납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총여를 포함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총여에 대한 여학생들의 신뢰와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레 납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Q. 끝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부탁한다.(전 구성원 대상, 혹은 학생 대상)

A. 정 - 총여는 여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남학생들도 함께 할 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니 남녀 학생을 막론하고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 부탁 드린다.

성평등 상담실이 취업진로지원처 소속이어서 예산편성이나 행사진행에 많은 한계가 있는데 학생지원처로 소속을 옮겨 총여와 활동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여학생 휴게실(달거리카페) 올바로 쓰기’ 및 ‘생리공결제 UPGRADE’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또 ‘남학생 휴게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생리공결제는 교수들도 각자마다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리통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는데 출석인정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생리공결제를 올바로 이용할 수 있을지 교수, 학생간의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이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악용하는 것은 여학생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는 흥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는 휴식이 필요한 여학생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음주 후 이용이나 취식 등 쉬고 있는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남학생도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학교에 남학생이 편히 쉴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 음주나 흡연 등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각 단과대 회장과 학생회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Q. 끝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부탁한다.

A.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해서 서로 공격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자신의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이다. 남성과 여성의 모든 모두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학내문화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국제캠 총여학생회 후보 '친 KHU'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A. 1학년 때부터 총여학생회(총여)에서 집행부, 대표자로 일 했고 올해에는 총여 부회장을 맡으면서 총여의 가치를 많이 느껴왔다.

그런데 얼마 전 총여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고, 올해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년에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입후보하게 됐다.

Q. 현 총여학생회 부회장의 입장에서 현 총여학생회의 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반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지난 한 해 동안 총여가 주최한 행사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토크콘서트’다. 1학기에는 과정은 애디터를 초대했고, 2학기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인 다니엘 린데만, 로빈 데이아나, 줄리안 퀸타르트를 초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성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대중성 있는 연사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성 인식을 녹여낼 수 있었고 대규모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 외에 각 단과대학의 학생들이나 총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총여학생회 폐지론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듣고 싶다.

A. 많은 학생들이 총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총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를 모르는 것 같다. 따라서 총여의 존립이 유를 명확히 알리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고 느꼈다. 또 총여가 총여학생회의 산하기구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총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총여는 변화의 주체를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생리공결제의 악용 등으로 자신의 권리와 지키지 못하는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중점적인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Q. 부 후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부 후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여가 존폐논란에 휩싸이면서 위기를 맞은 이유도 있다. 만약 총여학생회장이 되어 더 활발 활동들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한다면 앞으로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

Q.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생각인가?

A.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잘못된 술 문화와 술로 인한 2차 성 범죄 예방교육, 단과대학 투어, 서울·국제 총여 학생회 합동 토론회, 2박3일간의 ‘공감데이’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하기 등이다.

Q. 주요 공약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첫째는 ‘강연 개최’다. 여학생을 위한 강연으로는 여성 CEO를 초청해서 사회 또는 직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문제와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얘기해보는 자리 만들 생각이다. 남학생을 위한 강연으로는 예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제도 속의 남자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내는 울면 안 된다’ 같은 고리타분한 인식들을 타개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는 ‘성평등 상담실의 소속 변경’이다. 성평등 상담실은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진행과 학생들의 고민 상담 등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